

2018년 3월

창간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여 남긴 역사시대(歷史時代)와 그러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선사시대(先史時代). 광오한 표현일지는 모르나, 저희는 교지 <CHA PHARM IN>을 통해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시대를 열어젖힌다는 심정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창간호를 펴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다보니 무척 서툴고, 기성 언론의 수준높은 글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게는 마음에 차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돌잡이에 연필을 잡길 고대하던 아이들이 벌써 약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터이니 학생들이 만드는 점을 고려하시어 어여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작업이 해를 넘긴 탓에, 첫 기사를 쓰고는 다들 한 살을 더 먹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기자 동기, 선배, 후배가 나이에 비해 연로해 보인다면 교지 탓이니,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건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창간호가 발간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해주신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님을 비롯한 약학대학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도교수로서 식성 좋은 저희를 먹이라 지갑이 얇아지셨을 양영덕 교수님께서는 늘어난 adipose tissue만큼 더 감사를 올립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길 고대하며 글을 맺습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박한솔 (약학과 14), chapharmin@naver.com

편집위원/취재팀

송지연 (약학과 14), 전소영 (약학과 15)
최지혜 (약학과 14), 홍경민 (약학과 14)
백승원 (약학과 14), 임가연 (약학과 15)

발행회차

2018년 창간호 / 2018년 03월 05일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기고]창간기념 축하

03

[취재]학장님이 쓴다!

04

[취재]GRRC센터 유치

05

팜파라치

06

[취재]약초원 개원식

07

[취재]CHA PHARM DAY

08

[취재]화이트코트 세레모니

09

약학대학 속마음 게시판

10

[인터뷰] 학생회장을 만나다

11

약학과 발자취

먼저 <CHA PHARM IN> 뉴스레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불과 4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역사가 짧은 대학이지만 매년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학대학 소식이 부분적으로 약학대학 교지를 통해서 재학생 중심으로 전해 졌습니다만 이번 뉴스레터 창간을 통해서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정기적으로 전해 질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창간호가 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해주신 양영덕 교수님과 재학생 편집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학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동문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서 약학대학 발전에 관한 소식뿐 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소식이 공유될 수 있을은 정말 고무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약학대학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겠지만 뉴스레터를 통한 모든 구성원간의 소통 자체가 약학대학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식과 조언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8년 무술년에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다시한 번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합니다.

<CHA PHARM IN>이 모든 구성원의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약학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약학대학장
서영거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

희망찬 2018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차의과학대학교는 미국 등 선진국에도 우리의 의과학을 전수, 수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통의 장인 교지를 발간하게 됨을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가족이 교지를 통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학부모회 오병주 회장

100여년 전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를 제패하는 대영제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전기를 발명하여 대량생산을 가능케한 2차 산업혁명의 주역 미국은 세계 최강의 부국을 이룩하였고 계속하여 컴퓨터 등 제 3차 산업혁명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전세계 1 등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융합기술 등 제 4차 산업혁명을 어느 나라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전세계 1등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차의과학대학의 학우 여러분들이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 세계에 우뚝서는 1등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미시간 주에는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13만

여 점의 실패 상품들을 전시하는 실패박물관! 재미있는 점은 거액의 관람료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진들이 이 '실패 박물관'에 줄지어 찾아온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곳은 '실패박물관'인 동시에 '도전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공! 이들은 모두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야말로 창의적 발전을 이루는 근원이라 할 것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교지 발간을 계기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는 융복합의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지 발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약학대학 학부모 회장
오 병 주 드림

약학대학 중간고사 간식행사 **학장님이 쏜다!**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을 비롯한 약학대학 교수들이 과학관 로비에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10월 11일 아침, 과학관 1층 로비는 평소 시험 기간보다 유난히 더 북적였다. 9시가 다가오자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고, 학생회 학우들의 도움으로 로비의 테이블에도 M사의 아침 햄버거와 커피가 가득 쌓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을 비롯해 최현진 학과장 및 다수의 약학대학 교수들이 로비에 나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전적 대학에서는 없던 일 시험기간 배려에 감동

행사 지원에 참여한 약학대학 제 7대 학생회장 박찬섭(14) 학우는 "전적대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지만, 학장님이 직접 간식을 나눠주신 것은 처음"이라며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학장님의 열정에 감동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간식을 배부받은 학생들 역시 시도 신기했다는 반응이 다수. 행사에 참여한 이희다(15) 학우는 "학장님께서 냅킨을 받아가라고 부르셔서 깜짝 놀랐었다"며 "개별 학생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이고 계셔서 무척 감동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5학년 김동석(13) 학우 역시 "약대 재학 3년 중에 처음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며, "시험 기간에 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은 것 같아 감사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학생 만족이 가장 중요 교수도 기꺼이 참여해 감사

행사를 준비한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은 어려운 점이 없었냐는 질문에 되려 "학생들이 간식에 만족은 하더냐"고 되묻곤, "학생들이 만족했다면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약 30분가량 과학관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박한솔 기자



행사 시작 전 학생회 구성원들이 간식을 준비 중이다

약학대학 GRRC 센터 유치 성공

센터장 손우성 교수... 5년간 총 연구비 67억 원 확보



GRRC 센터장을 맡은 약학대학 손우성 교수가 행사에 참여한 내빈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다

9월 22일 과학관 지하 강의실에서 제1회 GRRC 정기 심포지엄 및 기술 교류회가 열렸다.

사업에 참여한 여러 학과의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물론 학교 내빈들과 약학대학 학생들이 설명회장을 가득 채워, 일부 학생들은 가장 뒤 줄에 새로 의자를 가져와서 앉아야 할 정도로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GRRC 사업이란, 경기 동북부 지역특화자원 선진화 센터(이하 GRRC 센터)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해당 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5년간 총연구비 67억 원을 확보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의 특화 자원에 대한 체계적 산업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경기 북부 연구허브 목표 학생들도 연구 참여 늘듯

이날 발표를 맡은 센터장 손우성 교수는 지역산업발전을 선도할 산학연 중개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GRRC 센터가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 산학연 거점이 되어, 경기 동북부지역의 산업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설명회장을 가득 채운 내빈들

손 교수는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제품화에 성공한다면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학생들은 어떤 반응일까? 행사에 참여한 손상혁(14) 학우는 "경기도 지역의 여러 산업과 연계해서 연구하면 학교의 위상도 올라갈 것 같다"며 "학생들도 더욱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연구 중심지로서의 판교와 강의가 진행되는 포천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연구 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어 학생들도 약학연구입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부센터장을 맡은 약학대학 양영덕 교수는 "이번 GRRC 사업 추진으로 그런 간극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학기 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연구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설명회가 종료된 후, 참석자들의 오찬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지혜기자



박민호(14) 학우를 위한 깜짝 생일파티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내맘속여신님버원 #호우호우 #뜻밖의생파 #감격쓰 #감동의쓰나미
#싸라해여동기들

최지혜 기자



동부지부 체육대회 예선전에서 맹활약 중인 이희다(15) 학우를 순간포착 했다

#발아구MVP #차대발아구녀 #슛볼은나의친구 #볼만있으면난외롭지않네
#시집갈수있어 #괜찮아 #멋져

최지혜 기자



이유진(14) 학우의 결혼식 장면을 여상구(11)학우가 사진에 담았다

#차약14유부2호 #잘살고있나이유진 #거의1주년 #유부3호도이미나옴
#4호도나올예정... #다들행복으세요 #다가버려---

최지혜 기자



FIP 서울총회 해단식에서 차약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약대중젤많은 #우린머리수로밀어부쳐 #최강차대 #심지어학장님이FIP고문

최지혜 기자



약학대학 약초원 개원

약학대학 정기원 교수에게 약초원의 묘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본교 이훈규 총장

추석을 한 주 앞둔 본교 후문은 로즈마리 향기가 가득했다. 지난 10월 25일 본교 이훈규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 학장들과 처장단의 참석 하에, 본교 후문에 위치한 차 의과학대학교 약초원에서 개원식이 진행됐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교수도 셔츠 입고 잡초 뽑아**

이날 행사에는 조금 특별한 배석자들이 있었다. 약학대학 소속 '차아름' 회원들이 개원식에서 자리를 지킨 것. 지난 6개월 동안 직접 땅을 고르고, 약초를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면서 약초원을 가꾼 그들에게는 이날이 조금 더 특별했을 테다. 대표자인 박민호(14) 학우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기자의 질문에 그는 "힘들 때가 더 많았지만, 교수님도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실제로 조성된 모습을 보니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내빈단은 실무 책임자인 약학대학 정기원 교수의 안내를 받으며 약초원을 유심히 둘러보곤, 연신 감탄사를 터트렸다.

축사를 맡은 이훈규 총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빈 공터가 이렇게 풍성해진 것을 보니 여러분의 노고가 짐작이 된다"며, "(약초 덕분에) 임직원들의 건강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꽃을 피워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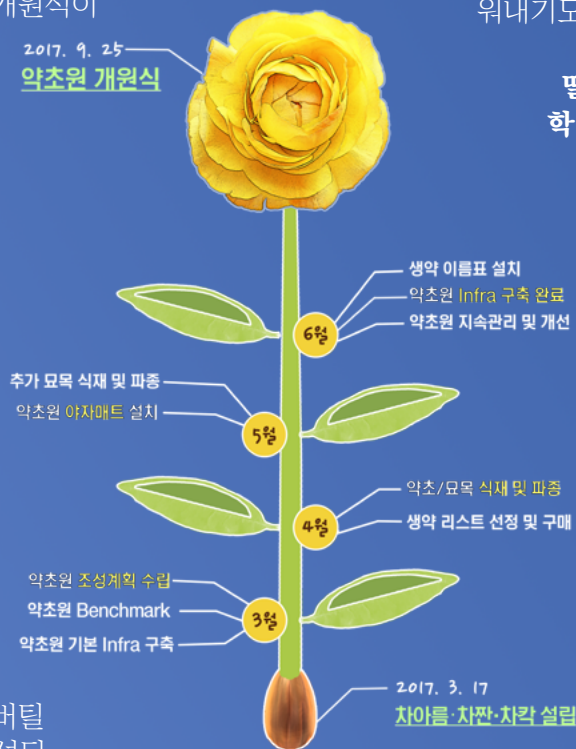
**딸 키우는 심정으로 조성
학교 랜드마크 되도록 노력**

약초원 조성의 실무를 담당했던 약학대학 정기원 교수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약초원을 차 의과학대학교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며 "추후 포천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생약을 추가로 식재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차 의과학대학교 약초원은 이훈규 총장의 지원 아래, 2017년 3월부터 약 6개월간의 조성 과정을 거쳐 개원하게 되었다. 교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학생들의 노력이 마침내 훌륭한 결실을 맺어낸 것이다.

박한솔 기자

2017. 9. 25
약초원 개원식



약초원 생장일지

제2회 CHA Pharm Day

일시 2017년 10월 27일(금) 장소 차의과대학교 현암기념관 주최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협찬 종합약학연구소, 경기도북부 지역특화자원 선진화 센터, 학습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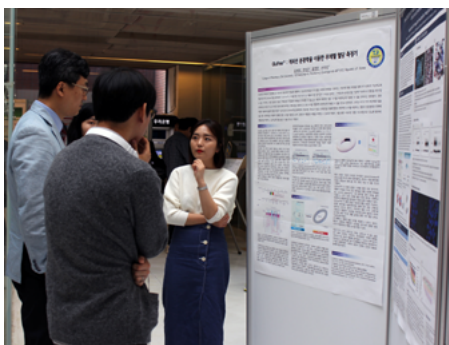
후배들 앞에 선 졸업생 강연자들. 조요한(09), 한아름(09), 최근원(10), 안병규(11), 안제홍(11), 이연주(11) 동문이 참여했다.

"선배님, 질문 있습니다!"

올해 2 회를 맞이한 CHA PHARM DAY 성황리에 개최

맑고 선선했던 10월 27일, 제 2회 CHA PHARM DAY가 진행되었다.

첫 행사였던 학술 포스터 발표회는 3, 4학년이 오전 수업을 마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학술 포스터를 전시하고, 포스터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는 행사. 과학관 지하 곳곳에서는 인상 깊은 포스터에 대해 스티커를 붙이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포스터 발표에 참여했던 오주원(14) 학우는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경험이었다"며 "도와주신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곧이어 2시 30분부터는 현암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현진 학과장의 학과 비전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졸업생 선배들이 각 분야의 직능 및 업무를 소개하는 자리

가 마련되었다. 강연자들은 지역 약국, 병원, 제약회사, 벤처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로서의 직능과 업무를 설명해주었고, 강연 이후에는 미리 신청받았던 질문을 추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후배들도 앉아만 있지는 않았다. 차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회를 시작으로 밴드동아리 <민트밴드>와 댄스 동아리 <요약정리>가 축하 공연을 맡았다. 공연에 참여한 요약정리 단원 박수린(15) 학우는 "(학교) 축제 때와는 다른 떨림을 느꼈다"며 "긴장했는지 실수를 크게 했지만, 교수님들과 학우 분들께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영거 학장이 작년 처음 시행 재학생과 동문의 화합장 되교파

강당에서의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학생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저녁 만찬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과 졸업생, 실습으로 바쁜 6학년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즐기는 뜻깊은 자리. 등갈비를 시작으로 식탁이 금방 풍성하게 채워졌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사진 소모임 <차각>이 준비한 사진 전시회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행사들이 진행됐다. 행사의 꽃인 경품 추첨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지기 시작했고, 영예의 대상 경품인 공기청정기는 임수환(15) 학우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받은 소감을 요청하자 그는 "아침부터 좋은 일만 있었기에 경품을 하나쯤은 받을 거라 생각했다"며 "동기들이 같이 좋은 공기를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강의실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미담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취재 기자들은 재학생의 입장에서 학번, 나이와 관계없이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다함께 모여 교류하고 즐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자평한다. **송지연·전소영 기자**



3년의 마침표, 그리고 새로운 1년

2017년 White Coat Ceremony

가을이 늦장을 부릴 틈도 없이 찾아온 포천의 초겨울 아침, 약학과 전체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는 6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는 재학생들이 화이트 코트(가운)을 은사님들께 수여받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는 11월 31일에 진행이 되었는데, 3년 동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실습을 나가는 선배들을 위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약 한 시간 20분 동안 차 의과학대학교 현암기념관 대강당 (포천)에서 진행되었다. 약학대학 서영거 학장의 개회사로 그 문을 연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는 서재원 차 의과학대학교 부총장의 격려사와 최광훈 경기도 약사회장, 김명수 포천시 약사회장, 한동원 성남시 약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지자 자못 진중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최광훈 경기도 약사회장은 "화이트가운이 의미하는 고도의 직업윤리, 소명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한동원 성남시 약사회장은 "학생들이 실습 도중 생기는 어려움들을 선배 약사들과 힘을 합쳐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축사가 끝나자 사회를 맡은 정기원 교수의 진행 하에 화이트코트 수여식과 5학년 학생들의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시작됐다. 선서 대표자인 김주희(13), 지용일(13) 학우가 선서문을 낭독하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약사의 의무를 다짐하는 재학생들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다.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하는 지용일(좌) 김주희(우) 학우

실무를 맡았던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는 "필드에 나가면 학교가 너무나 소중해지고, 그 느낌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이라며 "우리 교수들은 언제까지나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로 우직하게 서 있을 거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심미경 교수 역시 "약사로 살아가면서도 윤리만큼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Q. 자녀들이 화이트코트를 입은 것을 본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하다

대견했어요. PEET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고비를 넘어서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어서 자랑스러웠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박재윤 학부모, 신진영 학부모

Q. 포천을 떠나는 심정이 어떠신지?

입학하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후배님들과 동기들을 볼 시간이 줄어들다는 것이 가장 아쉬워요. 또 3년의 과정을 무탈하게 마쳤다는 뿌듯함과 열정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을 떠나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신대수(13) 학우

Q. 실습을 앞둔 심정이 궁금하다.

- ▶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겸손하게 공부 하겠다 김주희(13)
- ▶ 후배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 1인분은 하겠다 박기호(11)
- ▶ 응원해주시는 교수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성실히 임하겠다 김민지(13)
- ▶ 그 동안 포천에서 더 많은 추억을 남기지 못해 아쉽다 강동욱(13)

홍경민 기자

약학대학 속마음 게시판

15학번 대상★

Q. 1년 동안의 포천 생활은 어땠나요?

동기들 모두 가족같이 훈훈해서 즐거웠다

동기들과 즐거웠지만 긴장의 연속
야식이 유일한 낙
좋은 동기들 만나서 즐거웠다

기숙사 생활 덕분에 진짜 재밌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빠르고 힘들었다

막판에 너무 추웠음 ㅜㅜ

14학번 대상★

Q. 선배로서의 1년, 어땠나요?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
외울게 진짜 많다

내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들어
챙겨주지 못하게 미안하다

작년처럼 벼락치기 하시면 몸이 몹시 힘들거임

3학년이 개꿀이었구나...
마음만 앞서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후배님들

우린 4학년 끝났다!!!

동아리 활동으로
친해진 후배들이 있어 좋았다

15학번 대상★

Q. 입학 전에 예상했던 약대생 라이프,
입학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생각보다 3학년도 여유가 없었음

시험이 너무 많았다... 많아도 너무 많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예상은 했지만 공부량 장난 아님
나는 생각보다 훨씬 게을렀다

고등학교 같음
생각보다 많이 논 듯?

14학번 대상★

Q. 교수님과 친해지는 비법이 있다면?

웃는 얼굴
모임 장소에서 옆자리 앉기

반오십동안 쌓인 내공

재시를 보면 됩니다
생글생글 근황을 여쭙보세요!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예의바른 태도

오래 보다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는 듯

잘 모르겠....

13학번 대상★

Q. 다시 3학년으로 돌아간다면?

GPA 관리해서 실습배정 잘 받고 싶다

기초과목 공부 좀만 더 열심히 할걸 ㅜㅜ

열공한다
행복하다... 3년 더 놀아야지

13학번 대상★

Q. 포천을 떠나는 심정이 어떠세요?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 두근두근

곧 사회로 나간다는게 실감이 안나요

그리울 것 같아요

포천생활 부정적으로 생각말고
진짜 즐기시길

슬퍼요 ㅜㅜ 가기 싫어요

기자의 말★

정말 많은 응답 남겨 주신
재학생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면 상 모든 응답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백승원 기자·임가연 기자



제 7대 학생회장 인터뷰

약학대학 제 7대 학생회장 박찬섭(14) 학우

- 다양한 활동으로 분주했던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굳이 꼽으라면 전약제(‘전국약대생축제’의 준말). 2박 3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준비했는데, 사건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어떤 학교 학생들보다 더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줬던 3학년 학생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특히나 그 행사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일은 없었나요?

아쉬웠던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아카이브’ 같이 의욕 넘치게 시작했던 일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차기 회장에게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개선하려고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약협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우리 학교는 타 대학이 전혀 부럽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참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신설 약대임에도 이렇게 빨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학교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웃음).

- 마지막으로 본인 임기에 대한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활동을 계획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하나는 학생회 활동의 기틀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교류를 통해 학생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자는 것.

1년 동안 저희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많은 학우분들 덕분에 어느 정도는 이루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약학대학 제 7대 학생회인 <PHARMTASTIC CHA>는 회장 박찬섭(14), 부회장 이준수(14)를 중심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약학대학 학생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백승원 기자

2017년 약학과 발자취

PHARM TASTIC
with CHA



2017년 1월 20일

약사 국가고시 응원

힘든 약대생활을 마무리하는, 약사로서의 길을 향한 마지막 관문! 졸업생 선배님들과 재학생 후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도시락과 간식에 교수님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6학년 선배님들의 값진 땀방울에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손길들이 더해져 3년 연속 약사 국가고시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뤄 낼 수 있었습니다. 3기 약사 선배님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3월 9일

17년도 1학기 개강총회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7학년도 1학기! 예산안 인준부터 마일리지 제도 개선까지 66명의 재학생분들이 모아주신 의견 덕에 더 나은 차약을 위한 건강한 학생자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7일 - 18일

약학대학 총MT

아름다운 호수와 산 속의 그림 같은 숙소를 배경으로 그려진 약학과 총MT! 교수님과 오순도순 함께 한 바비큐 파티와 주, 야간으로 이어진 각종 게임들로 117명의 차약인들은 늦은 밤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회의 준비에 더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약학과 학생들의 능동적인 행사 참여 덕분에 한 명의 낙오자,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전국 약대생 축제

지성있는 약대생들의 축제, 전약제! 멀리 강화도 고인돌 체육관에서 시행된 행사임에도 전국의 모든 신입생 약학도가 한 자리에 모여 행사를 빛내주셨습니다. 전약협 출범식을 비롯한 여러 일정이 진행됐고, 특히, '디오스코리데스 선사'에서는 체육관을 가득 메운 촛불처럼, 이 자리에 한 데 모인 예비 약사들에 의해 밝게 만들어져 나갈 약업계의 미래가 한층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2월 3일 - 5일

전국약학대학 학생회 오리엔테이션

충남 아산의 도고토비스콘도에서 전국 35개 약학대학 학생회 구성원 30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약업계 현황에 대한 토론부터 각 학교 학생회의 정책 공유까지 더 나은 학생회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물론, 각 학교 별로 넘치는 끼를 뽐내는 자리까지 1년 간의 학생회 운영을 위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21일

약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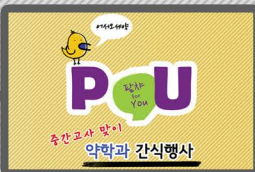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본교에 입학한 약학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부 행사는 서영거 학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현진 학과장님의 학과 비전 소개와 각 교수님의 전공 및 연구 분야 소개를 통해 우리 차약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지도교자 선정과 학생회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신입생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활기 넘치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2017년 3월 26일

동부지부 체육대회 예선

동부지부 대표로 전약협 체육대회에 출전권을 얻기 위한 여섯 학교의 경쟁!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보였던 농구에서는 어렵게 고배를 마셨지만, 발야구 준우승, 계주 대표 3인 선발 등 새로운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1학기 중간고사 맞이 간식매점 (PU)

매 학기마다 문을 여는 차약인을 위한 혜자 매점! 이번 매점 역시 개점 직후 30분 만에 완판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매점은 학생회 3학년 산악국원들의 주도 하에 기획, 집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2017년 5월 17일

CHA제전 & 해솔축제

차 의과학 모두가 함께 뛰는 CHA제전! 어렵게 농구 준결승 진출에 만족해야 했지만, 올해의 경우 특별히 CHA제전과 함께 진행된 해솔축제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나른한 봄날 저녁 해솔마당에 교수님, 학생들 모두 모여 중앙동아리의 공연을 관람하고, 치킨과 햄버거로 만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분방사수]에서 처음 선보인 수제맥주 덕분에 더욱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2017년 6월 12일

1학기 기말고사 맞이 간식 행사

압도적인 시험 범위, 끝까지 않는 시험... 약대생들에게는 호환마마 같다는 기말고사! 그런 차약인을 위해 학생회에서 준비한 간식 팩! 맛있게 드시고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2017년 8월 12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전체대표자회의

전국 35개 약학대학 별 대표자 2-3인이 참석하여, 전약협 임시전체대표자회의가 열렸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을 통해 전약협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전약협의 집행기구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교의 변경된 교명인 '차 의과학대학교'를 전약협 회칙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5일

동부지부 일일호프

전약협 동부지부 소속 6개 약학대학의 친목 행사, 동부지부 일일호프! 실무자로서 전반적인 기획 및 당일 진행을 맡은 차약의 이준수(14) 부학생회장의 노력과 우리 약대 밴드 동아리 [민트밴드]의 찬조 공연으로 행사가 더욱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동부지부 약대생들 뿐만 아니라 타 지부 약대생들도 많이 참석해 약대생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4일 - 25일

전약협 동부지부 LT

전약협 동부지부 소속 약학대학 (강원, 경희, 덕성, 동덕, 삼육, 차 의과학)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 가평의 대성리로 1박 2일간 리더십 트레이닝(LT)을 다녀왔습니다. 친목도도 뿐만 아니라 각 학교 별로 한 학기 간의 성공적인 정책이나 학생회 운영방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학기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0일 - 14일

세계약사연맹 (FIP) 서울 총회

세계약사연맹(Federation of International Pharmacist, FIP) 제77차 총회가 세계 139개국 3000여명의 약사 및 약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약업계의 흐름에 발 맞추어 가는 한국 약학의 위상을 빛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타 약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인 13명의 차약 학우들이 학생자원봉사자로서 행사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본 총회는 더욱 자랑스러운 행사였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약학대학 약초원 개원식

정기원 교수님의 지도 하에 16명의 [분방사수] 소모임 학생들의 꾸준한 애정의 손길로 우리 약학대학에도 약초원이 생겼습니다! 약초원에서 재배된 약초들로 담긴 각종 약초주와 생강청은 학생들의 노력이 담겨서인지 더욱 맛있거까지 했습니다. 정기원 교수님과 분방사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제2회 CHA Pharm Day

지성 있는 차약인들의 학술 큰 잔치, 차팸데이! 재학생 29명의 25개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올해는 특히 약사의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여섯 분의 졸업생 선배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강연으로 우리 차약의 연구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널리 펼쳐지고 있는 차약의 명성까지 생생하게 전달 받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진전과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시종일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차팸데이는 후배들을 위해 먼 길을 한 달음에 달려 오신 졸업생 선배님들 덕분에 차약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함께 그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중간고사 간식 행사 (학장님이 쏜다!)

힘든 시험기간을 보낼 학생들을 위해 학장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손수 기획부터 배부까지 학장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주전부리 덕분에 유난히도 빨리 찾아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따뜻한 시험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장님~ 잘 먹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제8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선거

1년 간의 학생회 활동을 마무리 하고, 다음 해를 이끌어 갈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기 위해서 학생회장단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는 본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동현, 최신에 학우가 각각 정, 부후보로 출마하며 단선으로 진행되었고, 27일 하루 동안 진행된 선거 결과 133명의 소중한 권리행사로 위의 두 학우가 2018학년도 한 해 동안 학과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7대 학생회의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모두 채워주는 멋진 학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8대 학생회 '자력', 모두 파이팅!

2017년 11월 30일

화이트코트세레모니

이제는 실무실습의 현장으로! 차약 5학년 선배님들이 3년 간 갈고 닦은 지식을 가지고 실습을 위해서 떠납니다. 3년 동안 아끼없는 애정과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의 가운을 입혀주시는 손길에는 아쉬움과 대견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4학년 대표 김정훈, 한건희 학우를 주축으로 한 4학년 후배들의 배웅을 받으며 실습을 향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은 선배님들! 부디 좋은 약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간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편집위원들이 전하는 학교의 소식만을 담았지만, 추후 발간될 소식지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건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을 이용해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는 최대한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니,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에게 기탄없이 질의 하시거나 편집장 박한솔(14)에게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박한솔
chapharmin@naver.com / 010-3190-8701

— 신규 편집위원 모집 공고 —

[대상 및 인원]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 중 소식지 편집에 관심이 있는 분
(Photoshop 등의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시는 분 우대)

3학년(16학번) : 4명 이내

4학년(15학번) : 2명 이내

[활동 내역]

학기 중 약학대학 행사 및 학생활동 취재, 외부 인터뷰, 기사 작성 등.
(소식지가 분기에 1회 발행되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업무가 있지는 않음)

[모집 전형]

간단한 지원서 작성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선발
자세한 일정 및 지원서 양식은 추후 카카오톡 공지

문의 : 편집장 박한솔 010-3190-8701